

耽羅王權과 日本

算 敏 生

目 次

- I. 序論
- II. 耽羅王權의 構造
- III. 天武期 二年 八月戊申條
- IV. 帝國秩序의 成立
- V. 結論

I. 序 論

耽羅라는 國名 혹은 地名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것은 朝鮮半島 西南海上에 있는 濟州島의 옛 呼稱이다. 耽羅는 5世紀末~6世紀初 百濟에 服屬되었고, 百濟 멸망후는 新羅·高麗의 屬國이 되어 12世紀初에 高麗의 한 郡이 되었다. 즉 王國으로서의 體裁를 잃고 高麗의 地方制度에 편입된 것이다.¹⁾ 그 간에 7世紀 後半, 짧은 期間이었지만 耽羅와 齊明~持統期の

1) 《高麗史》卷 57에 肅宗 10年 (1105) 耽羅郡 (후에 縣이 되었다)이 되었다는 記事가 있다. 耽羅는 高麗時代 이후 朝鮮半島 本土의 國家的 地方制度下에 넣

日本과는 國家的인 通交關係에 있었다. 日本書記에 의하면 齊明朝에 1회 (서기 661년), 天智朝에 3회 (666, 667, 669년). 天武朝에 3회 (673, 675, 677년) 持統朝에 2회 (688, 693년) 計 9회에 걸쳐서 耽羅가 日本에 使者를 파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日本으로부터는 天武 8년 (679년) 이전 및 天武 13년 (684)에 2회에 걸친 遣耽羅使가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우선, 森公章씨는 이 耽羅에 대한 論考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 그 歷史가 확실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 글에서는 森氏 및 그 밖의 연구를 참조하며, 두 개의 課題를 설정하고 싶다. 그 하나는 森氏도 앞으로 研究되어야 한다고 했던 耽羅王權 構造의 問題와 그리고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日本으로 使者를 派遣한 意圖에 대해서이다. 또 하나는 앞서 발표한 글³⁾에서 다 취급하지 못해 남겨둔 耽羅에 대한 日本의 外交 姿勢와 日本帝國의 秩序形成과의 關聯에 있다. 그런 뜻에서 이 글은 앞서 발표한 글의 補足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함께 읽혀졌으면 한다.

II. 耽羅王權의 構造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耽羅에는 그 首長인 王의 存在를 확인할 수 있다. 『日本書記』天武 2년 (673) 8月 戊申條, 同4년 (675) 9月

있다고 하지만 耽羅의 獨自性은 維持되었다. 가령 《高麗史》神宗 元年(1198) 11月 庚子條에 ‘國內名山大川及耽羅神祇各加號’라는 대목과 같은 高宗 40年(1253) 10月 戊申條에도 ‘國內名山及耽羅神祇加制民之號’란 대목이 있어 高麗本土의 神祇와의 구별이 있었다.

- 2) 森公章 “耽羅方補考—8世紀, 日本과 耽羅의 通交—” 《續日本紀研究》 239, 1985年; “古代 耽羅의 歷史와 日本—7世紀後半을 中心으로—” 《朝鮮學報》 118, 1986年, 또한 耽羅, 濟州島의 通史로 金泰能, 《濟州島略史》, (梁聖宗記, 1988年, 新幹社)가 있다.
- 3) 笈敏生 “百濟王姓의 成立과 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1989年)이하 본문에서 前掲라고 하였을 때 이를 가리킨다.

戊辰條 등에 「王」이 보이고 「新唐書」 東夷傳엔 耽羅王을 가리켜 「其王儒李都羅」라고 하고 있다. 또한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2년 (662) 2月에는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王子」 (이 경우 耽羅王의 아들이라는 意味)라고 稱해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⁴⁾ 더우기 그 王子가 王이 되었던 例도 있어서⁵⁾ 이 時期 耽羅의 王은 몇 代에 걸쳐 세습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耽羅로부터 日本에 파견된 使者에는 佐平이라는 百濟의 官位를 가진 者가 있는데⁶⁾ 이것은 王族 이외의 有力한 貴族, 豪族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前掲 「三國史記」의 記事에서 보이듯이 百濟에 服屬되어 있던 耽羅의 王은 王 자신이 佐平의 官位를 갖고 있었고, 百濟의 官位秩序下에서는 耽羅의 王과 貴族이 同等한 地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佐平이라 稱하고 있던 時期에는 차이가 있으니, 對等하다고 보는 데는 批判이 있을 지도 모른다. 耽羅王이 갖는 百濟官位가 佐平인 것은 662년의 일인 것에 대해서, 耽羅王의 臣下가 佐平이라 稱하고 있는 것은 天智 6년 (667) 7月 己巳의 「日本書記」의 記事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다. 耽羅王이 白村江에서의 日本軍의 敗北, 즉 百濟의 붕괴를 보고 스스로 百濟官位를 臣下에게 授與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第三節에서 고찰할 것이지만, 耽羅의 王·王子·貴族 등에게 天武天皇이 同一한 日本冠位를 授與하였다는 것은 王이하의 耽羅支配層의 階層 秩序가 未確立 狀態에 있었고 王과 貴族이 소위 平等한 關係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 耽羅 支配層의 이러한 狀況下에

-
- 4) 日本書記 齊明7年 5月 丁巳條 天智5年 正月 戊寅條 天武2年 閏 6月 辰條 持統7年 11月 壬辰條
 - 5) 日本書記 天智 5年 正月 戊寅條에 王子로 보이는 「姑加」가 天武4年 9月 戊辰條에는 耽羅王으로 再次 來日하고 있다.
 - 6) 日本書記 天智 6年 7月 己巳條 持統2年 8月 辛亥條 등
 - 7) 百濟 文周王 2年 (476) 4月 耽羅에서 온 使者에게 恩率을 주었다고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과연 耽羅王이 佐平을 賜與하였는지는 不明하다. 使者가 耽羅에서 어떤 地位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예는 耽羅支配層의 上層이 일제히 百濟官位를 수여받고 있었다는 小稿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순 없다. 또한 5世紀半頃에 있어선 耽羅가 百濟에의 服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리라.

있어서 王權이 세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百濟에 의한 王位の 保障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王은 반드시 突出했던 存在은 아니었던 것이다. 後世의 史料이지만 「高麗史」(卷 57) 所引의 「古記」에 보이는 耽羅의 開國神話에는 三神人이 땅 속에서 태어나 日本王의 使者를 따라 渡來한 3人의 王女와 婚姻하고 번영해 갔다고 되어 있다. 어느 段階에 있어서의 耽羅와 日本의 密接한 關係를 示唆하는 傳說이기는 하지만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三神人 즉 「良乙那」「高乙那」 그리고 「夫乙那」 세 사람이 妻를 맞아들인 후 居住한 곳을 각각 「第一都」, 「第二都」, 「第三都」라고 呼稱하고 있는 것이다.

三神人은 兄弟에 비교되고 있었던 듯하고 良乙那가 長男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그가 耽羅 全體를 統治한 것이 아니고, 三兄弟가 地域을 나누어 耽羅島를 統治했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三」은 陽數이고, 물론 이 開國神話가 歷史的 事實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三神人이 統治한 것은 耽羅島라는 폐쇄된 하나의 具體的인 空間이다. 日本神話에서 「아마테라스」, 「쯔쿠요미」, 「스사노오」라고 하는 소위 三神人이 각각 統治하는 空間이 아주 次元을 달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濟州島가 몇 개의 政治的인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日本書記」 神代 卷 第5段의 本文에서는 「아마테라스」, 「쯔쿠요미」가 함께 天上을 다스리고 스사노오가 根國을 統治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이 第1의 一書에서는 天上이 天地로 변하고 第 11의 一書에서는 天上이 拷千原, 根國이 滄海之原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것들에서는 「아마테라스」와 「쯔쿠요미」는 한 편이 되어 「스사노오」와 代置하고 있다.

그것에 비해 「古事記」에서는 「아마테라스」가 高天原, 「쯔쿠요미」가 夜食國, 「스사노오」가 海原으로 三者가 統治하는 世界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書記의 第6의 一書도 「古事記」와 유사하게 「아마테라스」를 高天原, 「쯔쿠요미」를 滄海原, 「스사노오」를 天下에 배치하고 있다. 「日本書記」 神代 卷 第6段의 本文에 「아마테라스」의 말로서 「父母既任諸子, 各有其境」이라고 되어 있다. 「其境」이라는 것은 平面的이 아니고, 直接的이었다. 耽羅 三神人의 神話는 高麗時代의 濟州島에서 有力했던 「良(梁)」 「高」 「夫」 三姓氏의 起源 說話的인

색채를 강하게 띠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成立의 새로운 것을 엿보게 한다. 朝鮮時代に 편찬 증보된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8)에 의하면 濟州島 各地의 「姓氏」의 畢頭엔 이 三氏를 들고 있고 이외의 姓氏는 朝鮮半島 本土를 中心으로 한 他地域으로부터의 移主者가 많은 듯하다. 또 前掲 「古記」는 이어서, 三神人으로부터 15代 지날 무렵의 新羅 盛時에 高厚, 高淸, 그리고 昆弟 등 세 사람이 新羅의 耽津에 도착해 通交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到來는 客星의 癸現으로서 新羅에 알려지고 그 때문에 長子로 보이는 高厚에게는 별(星)을 움직이게 했다는 現象에 유래하여 「星主」의 稱號가 新羅王으로부터 수여되었다. 또 次子로 추정되는 高淸에게는 「王子」의 稱號가 수여되었는데 이것은 新羅王이 자신의 아들처럼 총애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 「王子」는 新羅王의 王子처럼 대우받는다 하는 것이지, 耽羅王의 아들이라는 意味가 아니란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그리고 末子였을 昆弟에게는 「都內」라고 稱했다. 이것을 기원으로 해서 濟州島의 高氏는 星主의 號가, 良氏 (나중에 梁으로 改姓)는 王子의 號가, 夫氏는 都內의 別名인가로 생각되는 徒上의 稱號가 代代로 내려졌다고 한다. 開國神話에서는 良, 高, 夫의 順位로 되어 있고, 對外關係의 初期에는 高氏만 그리고 아마도 統一新羅로부터 高麗時代에 이르러서 高, 良, 夫의 順位로 된 것으로 보아 이 耽羅 「古記」는 여러 歷史段階에 있어서의 島內 諸勢力의 힘의 關係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느 時期에서부터 高氏가 新羅, 高麗로부터 「星主」의 號를 부여받아 耽羅의 首長인 王으로서 認定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有力한 良氏와 夫氏도 直接 半島의 王權으로부터 稱號를 獲得하고 있었다는 意義는 결코 輕視되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開國神話의 양상은 耽羅王國의 오랜 상황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7世紀경 耽羅의 支配 構造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確證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濟州島內의 地域의인 統合이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확립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耽羅의 하나의 역사적인 特質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說話로 보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同等한 百濟官位를 가진 諸豪族中에서 第一人者에 불과했던 耽羅王은 百濟의 存在에 依存함으로써만이 王統의 安定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王權 概念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內部構造로서의 면과 對外的인 側面의 쌍방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耽羅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耽羅의 王·王族이 佐平位를 가진 重臣을 中心으로한 臣下 貴族과의 相對的 關係에 있는 局面, 이 경우에는 王·王族 統治의 權力構造를 가리켜 王權이라고 한다. 王權이 세습제를 유지하고 세습왕권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臣下 全體에 대해서 權力的인 혹은 非權力的인 對應이 이루어지는 측면이다. 한편, 耽羅의 王·王族·貴族이라는 지배층이 외부와의 관계를 갖는 次元의 경우 耽羅 王權이라는 것은 이른바 耽羅의 支配層 全體를 權力體로 잡는 견해가 된다. 國內的으로 말하자면 百姓에 대해서 統治主體로서 등장하는 측면이다.

단 對外的 局面의 경우에도 王은 支配層의 總意를 代辯하는 존재로서 기대되고 있고, 廣義의 王權의 代表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王權 概念에 있어서의 二重性은 相互規定性을 가지고 있다. 耽羅의 경우에 있어서는 平面的인 內部構造가 百濟에 의한 王位 承認에 의해 安定化한다는 意味로 國內問題가 對外關係에 規定되고 있고, 반면에 日本으로의 遣使로서 耽羅王 자신이 나서는 것은 百濟 滅亡에 의한 危機意識도 물론 있고 對外關係에 의한 危機意識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 對外關係의 場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의 地位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뜻으로 內部 構造가 對外關係의 모습을 規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相互規定이라고는 하지만, 耽羅內部の 실상이 第一義的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耽羅의 支配層이 平等性을 유지하고 있기에 百濟는 우선적으로 佐平位를 수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어느 系統이 耽羅王이 되고 있었다 해도 여러 豪族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3世紀경의 倭國王은 倭領域內의 30余國의 王을 主體로 하는 「共立」에 의해 선출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6·7世紀의 耽羅王權도 이것과 유사하게 몇 개의 地域的 權力的 代表者에 의한 王의 選定이라는 段階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狀況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Ⅲ. 天武紀 二年 八月戊申条

『日本書記』天武 2년 (673) 8月 戊申条에 의하면 天皇이 來日한 耽羅의 王子 久麻藝에 대하여 卽位 賀使이외는 수도로 부르지 않는 것을 傳하게 하고 아울러 耽羅의 王 및 使者의 王子 久麻藝 등에게 大乙上의 冠位를 授號했다. 다음의 史料를 보면

詔 耽羅使人 曰. 天皇新平 天下. 初之卽位. 由 是. 唯除 賀使 以外不 召. 則汝等親所 見. 亦時寒波嶮. 久淹留之. 邊爲 汝愁. 故宜 疾帰. 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 鑒贈 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 錦繡 潤飾之. 當 其國之佐平位. 則筑 紫返之.

久麻藝 이외의 王子와 耽羅 貴族에게 大乙上이 수여 되었는지 아닌지는 「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에서 「等」의 해석에 달려있다. 이어서 大乙上이 「其國之佐平位」에 相當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久麻藝에 同行했을 佐平位를 가진 耽羅貴族과 在國의 佐平位에 있는 貴族도 想定한 冠位 授號는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其國」이란 것은 直接的으로는 耽羅를 가리키지만 百濟의 官位制下에 耽羅의 支配層이 包含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間接적으로는 百濟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佐平은 百濟官位에 있어서는 第一等이나 그것에 비해 大乙上은 매우 낮은 冠位이다. 이 不均衡에 대해서 한 마디 해 두겠다.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記』의 이 記事의 頭注는 「大乙上位를 나타내는 冠에 더 장식을 붙여 佐平位에 相當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떠한지.

그런데 『日本書記』天智 10년 (671) 正月 是月条에는 亡命百濟 貴族에의 日本冠位授與記事가 보인다. 佐平의 余自信에게 大錦下가 수여되고 達率을 갖고 있던 者에게는 大山下·小山上, 혹은 小山下가 수여되었다. 第一等の 佐平에게 上級の 冠位인 織冠·縫冠 등은 수여되지 않았고, 百濟官位로 第二等인 達率인 者에게 주는 冠位는 낮았다. 百濟의 官位制와 日本의 官位制에서는 그

對象으로 하는階層이一致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각각第一等の佐平과大織冠을相當하는 것으로 잡는 것도 곤란하다. 그 때문에 오히려日本의支配層 속의 어디에余自信以下亡命百濟人을 자리잡게 할 것인가 하는方針에 따라冠位賜與가 행해졌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耽羅의支配層에게는錦繡로 장식하는 등의 배려는 보이면서도日本側은그들을大乙上相當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아울러高句麗, 百濟를 멸망시킨新羅가麗·濟의貴族·官人을 스스로支配層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는第一等の官位를 가지고 있던者가新羅에서도第一等の伊伐滄을 얻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도參考가 될 것이다. 高句麗官位の第一等인主簿가新羅의第審等의一吉滄을 부여받았고, 第二等인大相이었던者가第八等の沙滄位를付與 받고 있었다. 百濟人의 경우第二等인達率이京位에서는第十等の大奈麻에外位에서는第四等の貴干에相當하게 하고 있다. 日本의官位에 준한다고 말해지면서도 전부 낮은官位를付與받는 데 머물고 있다. 『三國史記』職官志) 耽羅人에게百濟로부터授與되고 있던佐平位는아마儀禮的인 것이고, 그러므로百濟本國의佐平位를 가진貴族과耽羅의佐平位를 가진貴族이同等했다고 보는 것도 곤란할 것이다.

佐平位와大乙上과의不均衡은 이러한事情을 생각한다면 그렇게奇妙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注目하자 않으면 안되는 것은佐平位를 가진者에게大乙上이 동등하게 수여된 것이다. 이것은第一節에서 본耽羅支配層의 실상을 그대로 승인해서耽羅의實情에 있던冠位の賜與를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王子도佐平位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推定이 가능하고, 王族內部에서의階層性에도疑問을 품게 하는史料이다.

百濟의秩序에依存하고百濟에 의한王位の保護에 의해서만結集할 수 있었던耽羅支配層은百濟의危機에 임해서日本에使者를 파견했다. 百濟의危機는 곧耽羅의危機였기 때문이다.

그것은新羅의 침공에 대한 공포였음과 동시에百濟에 의해安定을 이룩한支配層의秩序危機였던 것이다. 그 위기를耽羅의支配層은日本에使者를 파견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다. 아마 그 때까지耽羅는百濟와의關係를 제외하

고는 王과 王의 레벨로서의 獨自의 對外的인 關係를 맺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公的인 關係를 他國과 맺는 것을 百濟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百濟의 붕괴로부터 新羅에 服屬되기까지, 즉 660년대부터 690년대까지를 耽羅가 獨自의인 外交를 展開한 시기로 森公章씨가 주장하듯이 耽羅의 「獨立」時期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⁸⁾ 그러나 耽羅의 使者가 그 신분을 百濟官位인 佐平으로 表示하려 했던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自立的인 地位를 耽羅가 얻으려고 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日本에 보낸 遣使에 대하여 耽羅가 意圖한 것은 豐璋의 冊立, 百濟 教授의 役割 등을 포함해서 百濟의 復興을 日本에게 요청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耽羅의 意圖는 齊明朝로부터 持統朝까지 一貫性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673년에 日本으로부터 大乙上을 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使者가 그것을 稱하지 않고 오히려 佐平을 계속해서 自稱했었던 것인 듯하다.

그러나 日本側의 對應은 변해 간다. 齊明으로부터 天智朝의 어느 시기까지는 耽羅의 利害와 日本의 利害는 百濟國家의 救援·復興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朝鮮半島에서 百濟의 再建을 企圖한 百濟 遺臣 그리고 余豐璋 善光 등 滯日中の 百濟王族과 貴族도 그것을 願望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白村江의 敗戰 以後 日本의 支配層은 百濟의 復興을 斷念하고 豐璋의 동생인 善光에게 나중에 姓으로 轉化된 集團의 呼稱「百濟王」을 수여하고, 亡命한 百濟貴族에 대해서는 늦어도 天智 10년 (671)경까지 百濟官位로부터 日本冠位로의 轉換이 기도되고 있다. 自立的인 王權으로서의 百濟의 地位를 否定하고 日本王權의 内部秩序에 편입시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

8) 森公章 “古代耽羅의 歷史와 日本” 또 660年代의 耽羅의 對外關係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665년 唐의 泰山에서의 會사에 참가했던 新羅·百濟·耽羅·倭國의 使者에 관해서이다. (《唐會要》卷 95, 《資治通鑑》卷 201).

앞의 梁者는 앞의 글에서 考察한 羅·濟 間의 境界 確定的 誓約을 행한 新羅와 能津都督府이고 正式 使者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耽羅·倭國에 관해서는 이해에 派遣한 日本의 遣唐使는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없었다는 점에서 正式이 아니었고 百濟 復興戰爭에서의 포려를 그 자리에 입회한 것으로 달리 보고 싶다.

은 경향은 앞서 발표한 글에서 언급했듯이 日本 王權을 中心으로 하는 帝國秩序의 形成을 향해가는 것이지만 耽羅의 支配層中 佐平을 稱하고 있었던 部分에 大乙上을 수여하기도 하고, 또 그 直前 百濟의 亡命貴族 沙宅昭明에게 百濟官位를 追贈하기도 하고 있는 것은⁹⁾ 이 7世紀 後半 日本의 一般的인 方向性으로 본다면, 약간은 奇異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보여 준다. 冠位를 갖고 있지 않은 善光의 아들 百濟王 昌成의 死去가 「薨」이라고 表記되어 있는 것도¹⁰⁾, 또 天武朝에 있어서의 百濟王族의 微妙한 혹은 애매한 경우를 象徵하고 있었다. 百濟의 內臣化를 槓杆으로 帝國秩序가 志向되고 있었기에 百濟의 自律性을 가진 王權으로서의 機能은 否定되어야만 했고, 百濟王의 權能 내지는 百濟王이 행한 행위를 日本天皇이 代行하는 행동은 奇妙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같은 행위는 天武朝에 있어서만 알려진 것이다. 帝國秩序 形式의 諸段階 중 一階梯로서 天武朝를 再考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節을 바꾸어 다시 檢討하기로 한다.

IV. 帝國秩序의 成立

異型的인 帝國秩序는 大寶·養老律令에 잘 나타나 있다. 豐璋의 冊封에 그 단서가 있기는 하나, 天智 2년 (663) 白村江의 敗戰에서 大寶令 성립까지는 거의 4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 사이 大海人皇子가 大友皇子와 왕위를 다투었던 이른바 壬申의 亂이 일어났다.

앞서 발표한 글에서 百濟王姓의 성립, 帝國秩序의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가 있다. 豐璋의 冊立, 이것은 豐璋에게 織冠位를 賜與함과 동시에 國王號로서의 百濟王을 日本의 질서내에 조직·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百濟 救援의 싸움에 실패 후, 豐璋의 아우 善光의 일족에게 集團의 呼稱으로 「百濟王」이 부여되었다. 日本의 질서하에 포섭된 百濟國家라고 하는 豐璋 段

9) 日本書記 天武2年 閏 6月庚寅條.

10) 日本書記 天武 3年 正元 庚申條 또 前稿의 第2章의 註 22 參照

階에서의 형식을 답습함에 불과한 것으로, 百濟國家의 붕괴를 목전에 둔 이상, 善光 등의 「百濟王」의 號는 百濟國王의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日本에서의 최후의 百濟王이었던 豐璋의 아우 일족을 우대해 百濟王族의 體裁를 유지시킨 채 日本 王權의 질서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內臣으로서 대우하기 위한 이른바 職掌的 稱號로서의 百濟 王號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아직 姓은 따로 없고 傳統的인 백제왕가의 성인 「余」라고 並記되어 있을 뿐이다. 그 후 아마도 庚寅年籍을 계기로 余姓이 부정됨과 동시에 姓으로서의 百濟王이 새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百濟王姓의 정리에 있어서, 天武朝의 位置는 불명확함을 남기고 있었다. 天武朝에 적응해서 帝國秩序의 성립과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天智朝에서 百濟貴族이 갖고 있던 百濟官位를 부정하여 善光 등을 王民化하기는 하나, 日本 王權의 臣下로서 재조정하였다. 즉, 天武朝의 對應은 다음과 같이 評價할 수 있다.

內臣 外臣의 구분이 애매하고, 化內 化外의 구분 역시 명확하게 정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天武朝의 日本王權은 百濟王族의 臣下化를 帝國形成을 위한 內臣化로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沙宅昭明에게 大佐平位를 追贈하고 耽羅의 지배층에게는 그 佐平位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大乙上을 수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天武朝의 日本 지배층은 百濟王의 權能을 日本 天皇이 代位하고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天智死後 大友皇子를 首班으로 하는 近江朝廷은 백제에 駐在하고 있었던 唐官人 郭務侖에게 武器를 제공하였다. 그 때까지 신중하게 신라·당 어느 측에도 가담하기를 극력 피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唐·熊津都督府 측에 傾斜된 것 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¹¹⁾ 天武 단계의 日本은 이러한 白村江 패전 이후의 非軍事的인 對外的 對應에 의한 近江朝廷의 「逸脫」에 대처하려는 나머지, 天

11) 壬申의 記前の 天武元年 5月 壬寅條에 있어서의 唐官人에게 「甲冑弓矢」의 供與를 鬼頭清明 “壬申의 記와 國際의 契機” (《千葉史學》, 13, 1988年)는 近江朝廷의 구성원에 百濟貴族의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과 大友皇子의 學問的 側近으로 百濟亡命者가 있었음을 들어 그들의 存在가 對外關係의 政策決定에 實質的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智 以來의 帝國志向, 冊封體制 志向에 「변화」를 파생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天武 즉위 후 賀使 이외는 入京시키지 않는다는 방침하에서 耽羅使와의 직접 교섭을 피한 사실도 당시 확고한 대외자세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傍證으로도 볼 수 있다. 耽羅使者는 倭(日本)가 신라의 耽羅侵攻을 억제하기를 당연히 기대하여 요청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이것은 日本에게는 어려운 요구였었다.

그후, 『日本書記』에 의하면 天武4(675) 6년에 耽羅로부터 使者가 來日하고 있고, 日本도 또한 天武 8년 이전에 탐라에 사자를 파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同 13년 10月에는 縣犬養連手經·川原連加末尼가 탐라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遣耽羅使는 軍事的 支援을 겸하는 성격은 없었다. 형식적인 물자 원조에 그쳐 결코 신라와의 항쟁으로 발전시키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 사이 天武 8년, 즉 신라 文武王 19년 (679)의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發使略 耽羅國」이라 하여 新羅는 본격적인 침략을 가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하에서 日·耽羅關係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과연 탐라는 自立志向을 갖고, 그 獨立을 지키기 위하여 日本과 通交하였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持統 2년 (688) 8, 9月, 同 7년 11月에 탐라사에서 사자가 佐平位를 自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耽羅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 귀속의식은 百濟에 있었던 것 같다. 日本이 부여한 大乙上의 관위를 고집하지 않았었다. 天武 2년 大乙上賜午에서 持統朝의 佐平 自稱 승인 내지는 묵인으로 日本側의 對應과 變化는 百濟王族의 內臣으로서의 위치정립의 명확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日本王權은 百濟王權의 대리 수행과 같은, 帝國秩序 형성에 반대하는 행위를 새로이 고쳤다. 日本이 百濟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日本王權과 百濟王權을 동등하게 정립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百濟를 상대적인 하위에 위

12) 前掲 新羅本紀 文武王 2年 2月條에 耽羅가 新羅에 投降해 왔다는 大目이 있다. 이것은 《三國史記》의 編者가 耽羅의 新羅에의 服屬을 빠른 段階에서 安성 맞추게 하려던 것이리라. 《高麗史》(卷 57)에도 耽羅는 본래 新羅에 朝貢하고 있었는데 후에 百濟에 服屬하여 文武王 元年에 再次 新羅에 來降했다고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新羅를 正統親하는 觀念에 규정된 說은 採用할 것까지 없다.

치시킬 뿐만 아니라, 百濟왕족에 대해서 天皇=皇族의 질서하에 명확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는 日本帝國 형성도상에 있어서 커다란 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方向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持統朝 시대에는 탐라에 사자를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

또 日本은 신라에 의한 耽羅領有를 인정하는 方針을 취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탐라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의미였을 것이다. 신라의 침공 본격화에 더불어 탐라로부터의 使者도 持統 7년에 두절되어 탐라의 신라 귀속은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日本이 탐라를 구원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日本은 新羅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제도의 정비와 국내 질서 형성에 온 힘을 기울여 東아시아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호를 倭에서 日本으로 轉換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百濟왕족의 위치 정립과 中華國 皇帝의 威儀를 모방한 日本帝國 天皇을 만들어 내기 위한 儀禮·儀式의 정비가 급격히 이루어진 듯하다. 飛鳥淨御原令은 天武朝에 立案되어 持統朝에 完成·施行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天武朝에서 持統朝의 초기 대외관계는 탐라와의 대응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반드시 帝國秩序成立 方向에 일직선으로 향해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淨御原令 段階에서는 新羅=諸蕃=外臣, 唐=隣國=「不臣客」인 주변 제국의 위치 정립은 확연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8世紀 初頭 中國에 건너간 栗田朝臣 眞人 등이 唐人 앞에서 「日本國 使者」라고 자부심을 갖고 宣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持統朝 후반에서 文武朝 초기까지는 大寶律令 제정작업이 진전된 시기였다. 이 觀念的 營爲는 이념적으로는 中華帝國에 뒤지지 않을 帝國秩序를 日本 지배층에 안겨 주었으나, 理念으로서의 完成度·抽象度가 높은 만큼 現實과의 乖離는 명확한 사실이었다. 8世紀의 日本對外關係는 律令 法文과 현실과의 모순을 깨달으면서 理念의 崩壞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었다는 것은 앞서 발표한 글에서 이미 論한 바이다.

V. 結 論

高麗 肅宗 10년(1105), 耽羅王國은 耽羅郡으로 變해 州郡制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三國史記」地理志에 濟州島 耽羅는 등장하지 않으나 「高麗史」地理志에는 耽羅縣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그런대로 耽羅의 왕권구조를 검토하려고 했다. 그러나, 檢討·對象으로 할 수 있는 자료는 7世紀 후반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 뿐이어서 耽羅王權 역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불충분한 고찰이지만 그런대로 몇가지 점은 확실 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제까지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8世紀 이후의 日本의 耽羅觀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싶다.

7世紀경의 탐라에 있어서 王은 특출한 存在는 아니고 諸豪族과 同一한 百濟官位를 갖고 있었으며 아마도 百濟에 의존함으로써 광의의 王權統一을 꾀할 수 있을 정도였다. 濟州島내 諸勢力 균형 상태는 耽羅의 한 특질이었던 것 같으나 新羅에 복속한 후는 同一한 官位를 王과 貴族이 동시에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耽羅에 대해 天武朝 초기 日本은 百濟의 耽羅에의 대처방법을 어쩔 수 없이 모방하는 상태로 耽羅와의 교섭을 취하였다.

그러나 耽羅측의 귀속의식은 계속하여 백제에 있었고, 또한 日本측의 百濟王族, 百濟王權의 처리 진전, 즉 제국질서의 형성, 신라의 耽羅침공에 의해서 耽羅와 日本의 국가로서의 관계는 두절된다. 8世紀에 있어서 日本의 耽羅觀은 耽羅島로서 여겨 결코 탐라왕국으로 보지는 않았다. 藤原廣嗣의 도주경로는 耽羅「島」를 향한 것이지, 耽羅「王國」에 망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된다.¹³⁾ 8世紀 후반 寶龜年間 遣唐使의 耽羅에서의 遭難에 있어서도 日本側은 耽羅와 직접 교섭하지 않고 新羅에 사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도 耽

13) 續日本紀 天平 12年(740) 11月 戊子條 耽羅國과 日本國과의 公的인 關係가 끊어졌다고 해서도 藤原廣嗣 등의 배를 타고 北部九州의 海民들이 耽羅에의 船路를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日常的인 交流가 耽羅島와 北九州와의 사이에 있었으므로 배는 耽羅에 향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羅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¹⁴⁾ 또 延喜主計式에 보이는 「耽羅貢」도 耽羅라는 섬 이름에 의한 것이며 똑같이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天平王 10년 (738) 周防國正稅帳¹⁵⁾에 보이는 「耽羅方脯」도 平城京에 향하는 耽羅人은 「耽羅國人」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耽羅島人」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日本 지배층에 있어서는 신라 영역하에 속하는 한 지역으로서의 탐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와 日本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계는 끝났다고는 하나, 人民·民衆 차원에서의 교류는 다양한 성격을 띠면서 계속되었다.¹⁶⁾ 耽羅貢이 志摩國에서 調貢되었던 사실도¹⁷⁾ 志摩 漁民이 탐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도 日·耽 交流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耽羅貢의 名稱도 耽羅島에서 발명 발견되었던 貢 加工法의 傳來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第二節에서 본 ‘高麗史’의 「古記」로 引用된 耽羅開國神話에 日本이 얽혀 있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交流이며 아마도 耽羅와 北部九州와의 婚姻關係, 穀物交易 등을 背景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14) 後掲의 耽羅貢·耽羅島人·耽羅方脯 등을 포함하여 森公章 《耽羅方脯考》(前掲)를 參照.

15) 《大日本古文書》(編年) 2卷 pp. 130-146.

16) 國家的인 通交와 人民·民衆레벨의 交流를 斷絶하여 생각하는 것은 難點이 있지만 國家와 國家와의 關係가 王과 王과의 關係를 現象으로 생각하는 前近代의인 外交狀態를 감안한다면 우선 해두지 않으면 아니될 作業追程일 것이다.

人民·民衆레벨의 交流에 關係선 高稿公明 “中世東 아세아 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島를 中心으로—”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8號, 1989年) 網野善彥 “中世에서 본 古代의 海民” (日本の 古代 8, 《海人の 傳統》 1987年, 中央 論社)를 參照하기 바란다.

17) 《平城宮伏簡一》 344號 木簡